

청소년과 성폭력 :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김 정 회*

- I. 들어가는 글
- II. 청소년 성폭력의 실제
- III. 청소년 성폭력의 사회구조적·문화적 배경
- IV. 대안을 찾아서

I. 들어가는 글

성폭력은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적 회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아내강간, 강도강간 등 민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 성폭력에는 감옥이나 군대 등에서 일어나는 남성에 의한 남성의 성폭력도 존재하나 성폭력 사건의 압도적 다수는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자가 피해자가 되는 유형이다. 따라서 성폭력은 일차적으로는 여성문제로 조명된다. 더군다나 1년에 신고되는 강간이 5,000건을 넘어서고 있고 신고율은 2.2%(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에 불과하다고 볼 때 1년에 25만명 정도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

산된다. 또한 한국은 보고된 성폭행전수 만으로 볼 때, 성폭행 발생률이 세계 3위이다(한겨레 92.4.22). 따라서 1990년 '여성문제' 조사에 따르면 성폭행은 여성 스트레스 재 1위이기도 하다. 밤에 보충 수업을 마친 여학생들을 위해 자가용이나 봉고차가 대기해야만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성폭력에 관한 많은 연구를 낳게 하였고 여성계로 하여금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 또한 전개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성폭력을 청소년 문제의 시각에서 조명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가해자의 다수가 10대·20대이고 피해자 역시 그러하다고 볼 때, 성폭력을 청소년 문제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또한 필자의 상담원 경험에서 볼 때 윤간과 같은 강간 중에서도 극단적인 형태의 강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피해자의 회복은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있는 피해자 여성은 김부남 사건처럼 정상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을 회복하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나타내거나 가출을 해버리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사례까지도 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성폭행을 청소년 문제로 초점을 맞추어 가해자와 피해자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범죄를 예상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연구·실시하는 것이 다급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성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청소년과 성폭력의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수준의 글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정책적 차원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청소년 문제로서의 성폭력이 얼마만한 비중을 갖는가를 살펴 봄으로써 청소년과 성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청소년 성폭력의 사회구조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고 IV장에서는 청소년 성폭력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특히 논의는 II장에서 청소년 성폭력 실태를 간략히 살펴본 후, III장과 IV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II. 청소년 성폭력의 실제

YMCA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폭력·협박 때문에 부득이 성교를 한 경우 1.6%, 원하지 않았는데도 성교를 한 경우 5.4%, 강간을 당한 경우 1.8%, 윤간 0.8%, 권위에 의한 성관계 1.9%로 나타나고 있다(YMCA, "대도시 청소년의 성폭력 실태," 한겨레 '90.7.1). 이들 성관계는 결국 강제적인 성관계이며, 따라서 강간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조사에서 실제적으로 강간 경험을

한 여학생은 모든 11.5%로 약 10명 중 1.1명 꼴로 강간을 경험했다는 말이 된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여성 중 10세 이하의 여성이 40.7%로서 연령별로 제 1위를 차지한다. 성폭력을 당한 첫 평균 연령 또한 19세, 20세로 나타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 가해자의 경우는 '86년 강간의 43.2%가 10대 범죄이고 이중 66.6%가 집단 비행이고(동아일보 1988.12.21) '가족면전 강도 강간범'중 36%가 10대 청소년이다(김상희, 1992). 또한 치안본부, 「88년 약취 유인 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인신매매범 중 10대가 50%, 20대 35%를 차지한다(동아일보 89.3.9). 각 경찰서의 변태성 범죄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70%가 16-20세로 인격발달이 성숙치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첫 성관계가 주로 강간형태를 띠고 있다(여성신문 91.7.12). 이같은 수치들을 보면, 10명 중 한명 꼴로, 여학생이 극단적인 성폭력인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고 성폭력 피해 여성과 가해자의 약반수가 각각 청소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성폭력을 청소년 문제의 측면에서 조명해 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청소년 성폭력의 유형을 대강 분리해 보자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성폭행은 서울의 경우 경찰서마다 한 달 평균 2-3건씩 접수되고 있다(동아일보 '87.9.14). 그러나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는 어린이 성폭행은 동네에서 아는 오빠나 친척 오빠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 이런 경우는 신고가 안되는 것이 상례로 보인다. 또 신문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른바 문제 청소년이 또래 여학생을 윤간하는 경우, 아니면 강도·

강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얼마전의 충주 성화원 사건처럼 보호시설의 원장과 같은 관리자가 신분·권위를 이용하여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의 아동 성폭행도 이와 같은 성격의 것이다. 또한 계부나 친아버지, 오빠, 삼촌, 할아버지 등이 성폭력을 하게 되는 근친강간, 근친추행도 피해 여성이 아이거나 청소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1991년 4월부터 1992년 5월까지의 상담통계를 보면, 근친강간은 강간(35.6%) 중 18.6%(이중 아버지·오빠에 의한 것이 11.9%, 친인척에 의한 것이 6.7%), 근친추행은 추행(8.7%) 중, 25.9%(이중, 아버지·오빠에 의한 것이 14.8%, 친인척에 의한 것이 11.1%)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2). 이를 전체 상담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근친강간 4.2%, 근친추행 2.3%가 된다. 성폭력의 6.5%가량이 근친 남성에게 의해 일어나고 근친인 여자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 중 강간은 피해자에게 성폭력 증후군을 나타낸다. 심리학에서는 강간의 발달단계상의 위기와 피해위기 *victim crisis*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위기 증상을 가져온다고 보았다(Ann Burges Wolbert and Lynda Holmstrom Lytle, 1979: 205-210).

1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강간의 고통은 성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발달과제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후부터 사춘기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성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행이나 강간 사건 자체는 아이들에게 큰 공포나 가해로 경험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들은 뭔지 모르는 채, 또는 놀이인줄 알고 성폭력에 응하기도 한다. 사건

을 알게 된 부모가 마구 화를 내면 그제서야 부모의 화가 가해자가 아닌 자신을 향한 것으로 알고 당황하고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연령대 아동의 성폭력의 경우는 가해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가나 경찰서 아저씨에게 혼이 나야 할 사람이라는 등 분명하게 가해자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일러줄 필요는 있으나 아이에게는 분노나 화를 비추지 말고 태연하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의 이런 여유있는 태도는 아이로 하여금 자람과 더불어 성폭력의 안 좋았던 기억도 말끔히 잊게 해준다.

사춘기의 청소년은 감수성이 한창 민감할 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 드는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성폭력을 말하기 어렵고 부모와 갈등관계에 빠지기 쉽다. 심한 경우는 중학생이 담배를 피우거나 가출을 해버리는 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성 역시 스스로 자유와 책임을 지는 성인기 돌입의 발달 과제를 앞두고 퇴행 현상을 나타내기 쉽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현실의 혼전 성관계 추세와 달리 강한 고정관념으로 남아 있는 혼전 순결 이데올로기는 정신질환, 자살 등을 불러일으킬 만큼, 피해 여성에게 '내몸은 더러워졌고 깨진 유리 그릇처럼 쓸모 없게 되었다'는 '손상된 상품 증후군' *damaged goods syndrome*을 심하게 나타나게 한다(이명선, 1990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는 개인적으로 찾는 정신과 병원외에는 피해자 여성의 심리적 회복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한편 가족면전 강도·강간의 경우 피해자는 대개 주부가 되는데, 이 경우는 피해자 여성이

남편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혼을 당하는 등 가정이 파괴되는 사태로 발전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여성의 성에 대한 소유적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남편조차 자기 부인을 깨진 유리 그릇으로 보는 '손상된 상품 증후군'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강간은 전쟁, 폭동, 살인, 강도, 구타 등과 같은 수준, 정도의 피해 위기 증상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범죄이다(알글 : 205). 이러한 피해위기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복수심, 때로는 자살, 살인과 같은 그러한 심리의 행위로의 표출(김부남, 김진관과 김보은 사건), 우울증, 불면증, 남성 기피증, 피해 망상증, 이로 인한 약물 중독이나 기타 정신과 질환, 가출 등으로 나타난다.

이같이 피해 여성에게 심각한 삶의 파괴를 초래하는 성폭력은 어떤 사회구조적·문화적 배경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다음에서는 이 문제를 청소년 성폭력의 사회구조적, 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생각해보기로 하자.

III. 청소년 성폭력의 사회구조적·문화적 배경

1. 성에 대한 야누스적인 두 얼굴 : 금기적 성문화와 섹골적 성문화

우리 사회(서구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일 것이다)에는 얼핏 보면,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서로 극을 이루는 두 문화가 공존한다. 하나는 가정, 학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다. 여기서는 아이들은 클 때까지는 성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 크는 것이 당연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아이들을 마치 성적인 백치 상태로

취급한다. 다른 하나의 문화는 스포츠 신문, 만화, 영화, 비디오, 포르노 잡지, 소설 등의 세계로서, 여기서의 주제는 연애내지 성관계이다. 이것들은 어른들을 위해 제작된다. 그러나 일간 스포츠를 집에 들고 오는 아버지, 형을 통해, 짝은 애로물을 네, 다섯살난 자식들과 함께 보는 부모를 통해, 또 어떻게 해서 얻은 음란물을 돌려 보는 청소년 문화를 통해, 이것들은 청소년들과 공유되기 십상이다. 또 최근에는 이른바 성교육 문화, 만화, 전자오락, 주니어 잡지, 전자오락 게임 등과 같이 직접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의 상품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 두 문화는 어떻게 맞물려, 성폭력의 극성에 어떻게 일조하게 되는가?

프로이드가 이른바 유아 성욕을 확인한 이래 심리학, 정신분석학, 성과학 등의 분야에서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성적 존재라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다. 즉 인간이 성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노동하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만큼 기본적인 인간성의 한 면을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성에 대한 관심, 호기심을 나타내는 것은 아이들이 셀 수도 없이 묻는 “왜”하는 질문의 하나에 불과한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의 이런 호기심에 어떻게 반응하나?

“어렸을 때 한번 ‘엄마 나 애기를 어디로 낳는지 알아’라고 말을 했다가 혼이 난 적이 있다. 그 뒤로 나는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커가면서 성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 배웠다. 그래서 지금도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다. 아니 말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내가 이 여성학 강의를 듣는지도 모른다.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를 위하여”(20세 남자 대학생).

“큰 애는 성에 대해 별로 신경 쓰이게 한 일이 없

다. 그런데 요즘 작은 딸 애가 뽀족한걸 보기만 하면 ‘고추다’하고 돌아 다닌다. 한 번은 손님이 있는데도 그래서 그런 딸 하면 창피한거라고 야단을 쳐서 못하게 했다”(35세 여성).

사례와 같이 아이가 성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에 당황해하면서, 아이가 무슨 큰 잘못이나 한듯이 야단을 치는 것이 어른들의 보통 반응이다. 애기는 어디로 낳는가라는 질문에 답해 준다는 것이 배로 나온다거나 황새가 물어다 준다고 하는 식의 거짓 대답이다. 이같이 야단치거나 거짓 대답을 한다고 아이가 순진무구한 성적 백치아 상태로 자라줄까? 또 아이들은 성적 백치아 상태여야 순진무구한가?

헬무트 켄틀러에 의하면 아이를 성적 백치아로 가정하고 그렇게 기르는 것, 즉 성금기적인 문화는 성적 방종 문화를 유도한다(헬무트 켄틀러, 1988).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적 호기심, 관심이 부모에게 찬 대접을 받게 될 경우 아이들은 곧 부모 앞에서는 성적 백치아로 행동해야 칭찬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부모의 시선을 피해 나름대로 성적 호기심을 충족해 가고, 이것이 성적 방종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것이다. 성금기적 성문화는 필연적으로 다른 한편에서 색眯眯적 성문화를 야기한다는 말이다. 이 논리에서 우리 사회도 벗어나지 않는다. 성은 모르면 모를수록 좋다는 부모와 학교의 태도와는 달리 아이들이 탐닉할 수 있는 성문화는 지천에 깔려 있다. 그 성문화는 곧 성의 상품화로 이 시장은 이제 ‘남자 어른인 구매자와 파는 어른 여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청소년 전체를 구매자, 소비자로 할 만큼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성의 야누스적 두 얼굴의 한 면으로서 성의 상품화가 어떻게 청소년의 성문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로 하자.

2. 성의 상품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필연적으로 이 사회에는 무엇을 해서든, ‘돈버는 것’이 인생의 제1원칙이 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팔 수 있는 것, 그것도 아주 잘 팔릴 수 있는 것을 호시탐탐 찾는 사람들에게 제도권의 성금기적 문화는 상품화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성을 파는 것이다. 파는 성 중의 으뜸은 매매춘이지만, 직접 행위하지 않고도 호기심 충족 내지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보는 성’이 상품화가 되기 시작한다. ‘보는 성’은 직접적인 비행위성으로 인해 아직 ‘행위하는 성’을 팔 수는 없는 중고등학생에게도 무차별하게 보급될 수 있다는 이점은 물론 이것은 이들이 곧, 대학·사회로 진출하면서 이들을 직접적인 성구매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풍토가 된다는 이점까지도 갖는다.

1990년에 YMCA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학생의 71.7%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스포츠 신문을 구독하고 남자 중학생의 96%, 남자 고등학생의 85%가 스포츠 신문을 애독하고 있다고 답하였다(노동자 신문 90.11.16). 이같이 청소년들의 일상적 애독물이 되가고 있는 스포츠 신문에는 “그녀가 말없이 코트 자락을 퍼자 실 오라기 하나 안 걸친 누드가,”라는 대사가 말해주듯이 ‘보통 여성’들이 색에 눈이 뒤집혀 남자에게 스스로 성관계를 유혹하는 색녀로 그려지는 만화, 애로 소설로 구성되고 있다. 한 때, 한 게그맨의 ‘여성학 보고서’라는 연재란이 있었는데, ‘여자의 그늘진 곳을 공략하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여성은 안전 벨트 때문에 가

슴을 더듬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등, 한 마디로 주행내지 성폭행을 연습시키는 난이었다. 필자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은 일요일 아침, TV 어린이 프로에 그 게그맨이 사회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외에도 청소년 잡지, 포르노 만화, 잡지, 비디오 역시 아동들에게 성을 과장되고 왜곡된 방식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고교생 74.4%와 재학생 69.2%가 '음란서적을 소지해 본 적이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동아일보 89.21.1)고 한다. 그리고 성인용 비디오는, 중고교생의 60%가 1번 이상 본 적이 있고, 10편 이상 본 학생도 7.9%나 된다(YMCA <전전 비디오 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조사, 동아일보 89.12.5). 성인 영화 전용관인 소극장은 어느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 비디오를 틀어 주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동아일보 89.3.24, 한겨레 92.6.18). 청소년 잡지도 청소년의 성관계 또는 성폭력을 두고 형식을 빌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여자의 거의 벗거나 나체인 사진을 실는다.

“포르노를 보는데 주로 사진이나 만화다. 1명이 가져오면 몇 명이 달려 들어 우르르 보고, 순진한 애들은 안보는 척 하지만 결국 집에 가기 전쯤이면 반 전체 애들이 거의 다 돌려보게 된다. 주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보지만 공부 시간 중에도 본다(장필화, 조형, 1992: 150).

사례에서 처럼 결국 '(사서) 보는 성'은 청소년기에 남학생들간에는 100% 공유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보는 성은 실제의 성행위로 유도하기도 한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서 비디오 시청 후 성행동 모방을 위해 이성 친구나 직업 여성과 성경험을 해본 학생이 8.8%나 된다(<YMCA 청소년상담실>, “청소년 비디오 접촉에 관한 의식 조사, 동아일보 '88.

4.23).

이같이 '보는 성'문화는 최근에는 국민학생에게까지 파급되고 있다. 90년에 동부 초등학교 연구부에서 서울 시내 5,6학년 8백 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6.8%의 학생들이 1-4권 이상의 성교육 동화를 읽고 있었다(여성신문 90.12.21). 그런데 문제는 이 성교육 동화라는 것이 성교육 전문가와의 협조없이 흥행 위주로 쓰여지다 보니 성교육서라기보다는 어린이용 주간지 같은 일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빨리 끝나 버렸으면 여성을 내팽개쳐버리지 말고 만족할 때까지 에프터 케어를 하는 것입니다”(「알고 싶어요」)와 같이 아동의 수준에 맞지 않게 성생활, 성기 묘사가 아무 여과 없이, 과장되게 실리고 있다(여성신문 90.12.26). 또한 처녀성의 상실을 아무 쓸모가 없어진, 산산조각나버린 하얀 백자 도자기에 비유하여 가부장적 정조 관념을 강화하기도 한다(「알고 싶어도」). 한편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책상 밑에 놓고 몰래 볼 만큼, 인기 있는 일본 만화 「드레곤 볼」은 성인의 저질스러운 성행위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고 수영복차림의 여자 인물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조..., 좋아! 방법은 한 가지 뿐! 미인계를 쓰자”라는 식의 대사와 함께 몸을 꼬면서 아양을 떨거나 선정적으로 옷을 벗는다(여성신문 90.12.21). 문방구에서는 ‘이런 포즈로 남자를 유혹해 보세요,’ ‘주부 성폭행한 가짜 외판원,’ ‘초여름 특별화보 섹시 포즈 총집합,’ ‘사랑받는 여자의 조건 섹시 우먼’ 등의 제목이 붙은 도색 잡지들을 팔고 있으며 여자 나체, 남녀의 성기 모양의 과자, 학용품, 장난감이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여성신문 92.6.5). 또한 컴퓨터의 사설전자게시판(BBS)을 통해 성교 장면을 코 앞에서 볼 수 있는 음란 프로

그램이 오고 가고 있으며(한겨레 92.7.2) 전자 오락게임에는 여자의 옷을 하나씩 벗길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등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의 상품화는 빠른 속도로 비대해져 가고 있다. 이같은 청소년 성문화와 성폭행과의 관계는 이 성문화의 특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3. 상품화된 성의 남성 중심성

1) 여성의 성적 대상화

남자 청소년들이 구매자 또는 보는 입장이 되고 여자는 만화, 잡지의 모델로 보는 대상이 되는 성의 상품화의 구도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이미 전제되고 있다. 즉 여자는 이런 남성중심적 성 상품화의 구도에서 눈요기감, 놀이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X월 X일 월요일, 맑았다가 흐림. 캔터키 집 짝은 주인 여자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는다. 그걸 노 브래지어라고 부른다. 상철이 말이 브래지어의 순수한 우리 말이 젓싸개라기에 한글 사전을 찾아 보았다. 그러나 그런 낱말은 사전에 나와 있지도 않았다”(『사춘기의 비밀』, 여성신문 90.12.26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남자 아이는 여자 어른 하나를 손쉽게 놀이개감으로 만들고 있고 이 성적 대상화의 교훈은 이 동화를 보는 아이들에게 학습된다.

최근에는 포르노 잡지·비디오나 만화가 모델 또는 주인공을 섹녀형의 여자로 등장시킴으로써 여성이 스스로 남근을 무차별적·무규범적으로 원한다는 신화를 유포시키고 있다. 섹녀로서의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남성들로 하여

금 성관계에서 자신들이 여성을 재체화시키고 있는 것의 비윤리성, 객체화 된 여성의 철저한 삶의 파괴에 눈감게 해주는 좋은 무기가 된다. 여자가 원하는 것을 남자가 해주는게 나쁠리 있는가? 그래서 여자에게는 강간인 것이 남자에게는 화간이 된다. 심지어 윤간마저 더할나위 없는, 섹녀와의 끝내주는 성관계로 신화화된다.

“여자가 처음 강간을 당하고 나면 그 남자를 못잊어 찾아 나선다고 들었다. 처음 강간당했을 때의 쾌감이 크다고 한다.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하다”(28세 사무직 남성).

“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영화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여자도 즐거듯이 남자를 포옹하지 않는가?”(26세 사무직 남성)(장필화, 조형, 1992: 137).

“고등학교 때는 노골적이었다. 자는 과정을 다 이야기하고 상상도 못할 진한 이야기도 많이 한다. ‘남자 10명이 여자 1명을 놓고 돌렸는데 그 여학생이 더 없냐고 그러더라는 등, 또 여자가 어떻게 소지를 지르고, 뒤로 했느니 앞으로 했느니 그런 얘기까지 한다’(앞글: 149-250).

성폭력은 상대방과의 인격적 관계나 합의를 전제하지 않는 남성의 일방적인, 온갖 성적 가해 행위이다. 따라서 이 행위의 폭력성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일단 전제되어야 가능해진다.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바로 이 점을 충족시켜 준다. 가임 여성의 1/10, 20대 여성의 1/5에 해당하는 120~150만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향락산업, 매매춘은 물론 청소년이 구매자가 되는 ‘보는 성의 상품화’ 또는 성폭력의 전제 조건 하나를 구비해주고 있는 셈이다.

2) 공격적·가학적 성=남성의 정상적 성이라는 신화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하느냐는 역사, 사회, 문화, 그리고 개별 남녀마다 천양지차다. '세 남자와 아기 바구니'나 '프라하의 봄' 같은 영화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몸을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느낌을 자아내는 성관계를 볼 수 있다.¹⁾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로 간접적으로만 전해지는 고려시대, 개울물가에서 발가벗고 목욕하던 젊은 남녀의 성관계 역시 이런 유희로서의 성관계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이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남성중심적 사회가 되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여야 할 것 같은 성관계도 남성의 지배 욕구의 표현에 다름 아닌 형태로 되고 말았다.

“여자는 약하고 밑에 깔리는 존재다. 난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산다. 성관계를 맺을 때 여러가지 채위가 있지만 여자가 밑에 깔리는 것 그게 정상이다”(앞글: 139).

남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행위하며 여자는 정액받이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닌 이런 성관계는 근본적으로 애정의 표현이나 몸의 대화 *body language*와 같은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남성에게는 성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만을²⁾, 여성에게는 고통 또는 귀찮다는 느낌을 줄 뿐이다(추애주, 1991 참고). 이런 면에서 이런 류의 성관계는 성폭력에서의 여성의 경험

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게 된다. 즉 남자들에게는 강간 총동과 성관계 욕구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장필화, 조형, 1992: 136-37).

논리적으로 성폭력은 성관계를 유희나 몸을 통한 상호적 의사소통, 애정의 표현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문화보다는 남자의 일방적 정복 행위로 생각하는 문화적 토양에서 보다 더 일어나기 쉽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영화, (포르노)비디오, 기타 문화물들 중에는 남성의 가학적, 일방적 성행위를 정상적인 성행위로 알게 하는 신화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대의 많은 갓, 첩보 영화에는 성관계와 폭력이 한데 어우러지는 경우가 많다. 또 영화나 소설³⁾에서 성관계는 대체로 남자가 옷을 벗기고, 애무하고, 남성 상위 체위의 허리운동을 하고 여자는 조금, 때로는 많이 반항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이나 신음이 마치 오르가즘의 표시인 양 연기를 해대거나 그렇게 묘사된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의 여자는 노골적으로 새디스트적 성관계를 미화한다; “남성들은 새디스트일 수 밖에 없으니 탈이다. 노예와 같은 상태로 얻어지는 황홀감, 그것은 새디스크의 쾌감에 견줄 바가 아니라는 것을 여성들이 명심 해주면 좋겠다...” 앞에서 언급한, 여자 옷벗기는 전자오락 게임, 강간·윤간을 미화하는 음담패설과 담화, 일간 스포츠의 만화와 기사들같이, 청소년들의 ‘보는 성문화’ 역시 가학적 성행위

1) 그러나 서구의 성관계가 이렇게 다 함의된 유희로서의 성관계만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라는 영화에는 인간관계 자체는 배제한 채락 그 자체로서의 성관계와 혼인내에서의 남자의 일방적 성관계, 이에 대한 부인의 불감증으로의 대응이라는 성관계 유형을 보여준다. 후자는 한국에서의 부부관계 성관계유형(추애주, 1992)과 다를 바 없다.

2) '중년 남성의 전화'에 상담해 온 남성의 70-80%가 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나타낸다(한겨레 89.8.23).

3) 이른바 고전으로 불리는, 「여자의 일생」부터 최근의 「경마장 가는 길」에 이르기까지.

를 학습시키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 문화는 남학생의 69.9%가 괴팍하고 끔직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은 충동을 가진 적이 있다(YMCA, '대도시 청소년의 성폭력', 한겨레 90.7.1)고 답할 만큼 우리 사회에 넘쳐 흐르고 있다.

마르쿠제는 「에로스와 문명」에서 프로이드의 영향하에 성을 에로스(eros)로서의 성과 타나토스(tanatos)로서의 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에로스로서의 성은 성을 통해 생명에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젖을 빨고 물리는 엄마와 아기와의 육체적 관계, 아이가 예뻐서 뽀뽀하고 보듬어 안는 아빠와 아이와의 육체적 접촉, 애인뿐만 아니라 친구간의 정겨운 어깨동무나 손잡고 걷기, 몸을 통한 의사 소통, 애정 표현으로서의 성행위, 이 모든 것이 에로스로서의 성이다. 즉 신체적 접촉을 통해 대등한 관계에서 사사로운(그러나 근본적인) 친교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타나토스로서의 성은 생의 욕구를 파괴하는 죽음에의 욕구가 표출되는 성이다. 성기 중심적 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이 파괴적 성이 바로 우리 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성의 모습이다.

4. 교육제도의 모순

성폭력 가해자의 40% 이상, 인신매매범의 50%가 10대 남자 청소년이 되고 있는 것, 청소년이 성폭력 가해자 중 제 1위 집단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교육제도의 모순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등 안에 들어야 시골 어느 구석에 있는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현실은 10대 청소년들을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게 만든다. 이들의 판단은 공부에 관한 한 옳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학교·부모는 포기하게 만

들지 않는다. 이들에게 자아를 형성하고 다른 방식으로 성인 준비를 해갈 대안은 제시되지 않은 채, 대학에 들어갈 것이 분명할 것 같은 우등생 아이들과의 승산없는 장거리 경주가 강요될 뿐이다. 학교 진도는 이 합격 가능성 아이들 위주로 진행되어 고2 말이면 고3까지의 진도가 다 끝난다. 무언가에 몰두해야 하는 왕성한 욕구를 가진 대다수 청소년들, 그러나 공부에 몰두하기는 이미 끝났다는 판단이 선 청소년들은 다른 몰두할거리를 찾아나서게 된다. 공부도 별루고, 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모델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여학생들이 몰두하게 되는 것은 '뉴키즈'나 '서태지와 아이들'과 같은 현대의 영웅인 연예인이기 쉽상이다. 남학생 중에도 여학생처럼 이렇게 연예인에 빠지는 부류가 있긴 하지만, 남학생은 남아답게 길러진 결과, 그 몰두의 양상이 여학생과는 자못 다르다. 남학생은 본드를 흡입하거나, 깡패 집단에 휩쓸려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으로, 즉 공격적·가해적으로 반항하는 경향을 보인다. 10대 청소년이 성폭력 가해자의 1위 집단인 것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주눅들게 해서 일탈 행위로 내몬 이 사회 구조, 이를 제대로 개혁해내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에게도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IV. 대안을 찾아서

1. 성문화의 변혁

여자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와 집을 오고갈 수도 없을 정도로 성폭력은 일상적인 위협으로 우리의 생활에 잠리잡고 있다. 소동과 고모라

를 연상시키는 이 우리의 현실은 어느 하나의 조처로 손쉽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상처가 아니다. 총체적인 매스와 새 살을 돋게 하는 치료가 필요하다. 성을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호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행위하는 성문화의 정착만이 성폭력이 아주 어찌다 정신병원에나 가야 할 비정상적인만이 저지르는 보기드문 범죄로 남게 할 것이다.

이 첫째는 야뉴스적인 성의 두 얼굴을 하나의 얼굴로 바꾸어야 한다. 헬무트 켄틀러는 성은 인간의 다른 모든 잠재력과 마찬가지로 타고나면서도 교육 여하에 따라 천양지차로 개발될 수 있는 것의 하나로 설명한다(헬무트 켄틀러, 1988). 따라서 개방적이고 일상생활에 녹아 들어가 있는 일상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성교육이 그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에 대한 앞의 욕구를 기본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정확한 지식으로, 그리고 인격적인 인간관계 속에 표현하고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배워가야 할 것이다. 필자의 예를 들어 보자. 딸 애가 두돌 쯤 되서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무렵 목욕하면서 나의 음모를 가리키며, “엄마, 머리”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는 없는 털이 엄마에게 나 있는 것이 무척 신기했는데 자기는 머리라는 말외에는 그 신기함을 표현할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이럴 때 부모가 당황하면서 얼버무리거나 아이에게 야단치는 것은 이미 아이에게 성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어떤 것이며 아는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부모에게는 배울 수 없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럴 때 여유있게 “응, 이런 털은 어른되면 여자나 남자나 다 나는 거다. 아빠도 이런 털이 있고 너도 어른이 되면 나는

거야”라고 응답하면 아이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넘어간다. 한 번은 애를 어디로 낳느냐고 묻는다. “오즘 나오는 밑에 구멍이 또하나 있어. 그런데 그 구멍은 고무 풍선처럼 보통 때는 닫혀 있다가 애기가 나올려면 다 붙은 고무 풍선처럼 늘어나서 애기가 쑥 미끄러지게 나올 수 있게 해. 너도 그렇게 해서 나왔다.” 이런 나의 대답에 애는 무척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지나간다.

필자의 경우는, 여성학을 전공한 덕택에 개인적으로 아이의 성적 호기심과 표현에 편안하게 대응하는 편이지만 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성교육이 정식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1987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주당 6시간 이상씩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간협신보, 1987.3.15, 황은자, 1988: 4-5에서 재인용). 그러나 보건 교육은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드물거나 실시되고 있는 경우도 여자에게는 안하니만 못한, 순결 교육이고 남학생에게는 성병 교육 정도이거나 성교, 남녀의 생식기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 그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런 피상적 성교육은 아래와 같이 성에 대한 혐오감을 주거나 심지어 잘못된 여성관만을 심어줄 뿐이므로 사실 성교육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중학교 생물시간에 아주 원론적인 것을 배운 기억이 난다. 시시한 것이었다. 난자, 정자, 성기의 구조... 그런 거였다(20세 남자 대학생).”

“고1때 생물 선생님이 성교육이라고 아기 낳는 장면을 비디오로 보여 준 적이 있다. 그것을 보고 모두 충격을 받았다. 아기 낳는 것 자체보다는 신비스럽다고 생각하던 여자의 몸, 성기를 보았다는 것 때문이었다. 징그럽다는 반응도 있었다(20세 대학생).”

“한 선생님이 ‘남자는 육체적 사랑에서 정신적인 사랑으로 나아가고 여자는 정신적 사랑에서 육체적 사랑으로 나아간다’라고 한 말을 듣고 ‘아 여자는 호박 씨까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했죠. 선생님의 권위를 통해 확인되는 거죠(29세 남성). (장필화, 조형, 1992: 149-50)

사실 지금의 선생님 세대가 정규 교과과정으로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이니 당면한 성교육의 현실은 당연하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보다 먼저 실시되어야 할 것이 선생님이 될 대학생들의 성교육이 아닐까? 우선 대학에서 성에 대한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적어도 사대생이나 교직 이수자에게는 필수로 듣는 과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아직 성교육 전공자가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여성학이 처음에 시작할 때 썼던 방법처럼 다학문적 접근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발전시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성에 대해서도 이런 접근과 노력이 매우 아쉬운 현실이다. 미국에는 여성주의 *feminism*의 영향을 받은 남성들이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남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남성이 감수해야 하는 남성다움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고자 하는 남성해방의 물결이 조용하게 일고 있다. 이 부류의 남성 집단에서 개최한 성교육의 일종인 섹스 워크샵에 참여한 남성들은 “폭력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 확인하면서 자기 자신과 여성, 남성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한다(여성신문 1992. 7. 31). 우리가 해야 하는 성교육 역시 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교육외에 인간관계 훈련으로서의 성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현실적으로 당장 요구되는 성교육으

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한 성교육이 있다. 성폭력 가해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사회의 잘못된 성 통념과 문화의 또 다른 희생자이다. 그리고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청소년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방적인 처벌보다는 성교육이 더불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교육은 피해 회복 차원에서 요청된다. 성폭력은 여성의 심신을 공포적 상황으로 몰고 가 폭력적으로 하는 성관계라는 데서 자연재해나, 고문 등과 같은 수준, 정도의 심신과피적 효과를 갖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자체만 해도 회복을 위해서는 심리학적, 정신과적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강간 증후군을 낳게 된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증후군이나 일탈적 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 사건 발생 직후 적절히 제공되는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뿐이다. 여성계의 성폭력 특별법 시안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성교육은 물론 피해자 보호시설과 가해자 교정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1992).

둘째로,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인 성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여성 상위’라는 말도 등장하고 있지만 여성의 현실적 지위는 여전히 제2의 성이다. 남자 평균 임금의 반밖에 못받고 승진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최고 고등교육까지 마쳤어도 30% 정도의 여대생에게만 취업 기회가 주어지고 생활, 종교에서의 고정관념들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성폭력, 성의 상품화의 거대한 기반이다.

셋째로, 현실적으로 다급하게는 법이 성폭력에 공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별 고정관념은 경찰, 교사, 법조인의 순으로 높았다(김선영, 1989). 성폭력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에서 경찰, 법조인이 고정관념이 높은 것은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조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재판보다는 합의를 유도하고 불기소를 과다하게 하는 등, 성폭력에 관대한 법률운용을 결과하고 있다(심영희, 1991). 또한 강간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문이 집중되고 있고 그 신문은 사건과 무관한 여성의 성력(性歷), 피고인의 성기삽입시 피해자가 쾌감을 느꼈는지의 여부 등이 된다(박선미, 1989; 심영희, 1991). 그 결과 경찰들에게 윤간을 당한 강정순씨 사건처럼 윤간으로 인한 성병 진단서같은 객관적 증거는 무시되고 다방 여종업원이라는 신분이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되어 성폭력 경찰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많은 경우 강간범들이 강간을 화간이라 주장하고 도리어 피해 여성을 고소하는 결과까지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법이 피해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해주고 있는 셈이다.

여성단체가 제시하는 성폭력 특별법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7조에서 수사 등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36조에서 피해자가 수사시 동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33조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 감정서, 진단서 등의 조사서류가 증거능력을 가짐을 분명히 하여 성력이나 저항을 얼마나 했는 가라는 따위가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성폭력 범죄

를 이전의 법에서는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여 법이 여성의 성에 대한 남성소유적 문화를 반영하던 것을 불식하고자 성폭력 범죄를 '성적 자기결정 침해 죄'(8조)로 못박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지 6개월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신고 기간을 폐지함으로써 김부남 사건처럼 오랜시간이 흐른 성폭행도 법의 재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다고 고용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획기적인 진전을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이 좋은 예이다. 법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성문화의 변혁이다. 이것은 몇 명의 손으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제대로된 성교육체계가 유치원에서 대학교까지 운영되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 동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성을 주제로 하더라도 섹너, 가학적-피학적, 변태적 성이 아니라 정겹고, 상호적인 성을 그리거나 쓸 수 있는 만화가, 소설가들이 나와야 하고 그런 영화를 만들줄 아는 시나리오 작가, 감독이 있어야 한다.⁴⁾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연구하고 교육하는 처방과 다른 한편에서는 저질스런 성문화를 재생산해내는 기존 문화물들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공격의 화살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 비판의 기능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YMCA>, <YWCA>, <스포츠신문 공동대책위원회>와같은 시민 단체가 주도해서 비중있는 시민운동으로 이끌어야만 할 과제로 남는다.

4) <또하나의 문화> 7,8호인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 「새로 쓰는 성이야기」는 정겨운 성의 모습보다는 문제되는 성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솔직한 담화들은 새로운 성문화를 이룰 수 있는 첫 걸음이 될만하다.

참 고 문 헌

- 노동자 신문, '90.11.16
- 동아일보, '87.9.14, '88.4.23, '88.12.1, '88.12.5, '89.3.24
- 여성신문, '90.12.21, '90.12.26, '91.7.12, '92.6.5, '92.7.3
- 한겨레신문, '90.7.1, '91.9.1, '92.4.22, '92.6.18, '92.7.2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성폭력특별법안, 무엇이 쟁점인가, 정당초청 공개 토론회 자료.
- 김선영(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미간행)
- 김상희(1992) "가정과피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1 회 워크숍자료
- 마르쿠제, 에로스와 문명, 김종호(역)(1985), 양문각.
- 박선미(1989),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미간행)
- 이명선(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이화여대 석사 논문, 미간행)
- 장필화, 조형(1992), "한국의 성문화-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 추애주(1991),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 하나의 문화-새로 쓰는 섬이야기
- 한국형사정책 연구원(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성폭력상담소(1992), 나눔터 4호
- 헬무트 쾰틀러, 행복과 해방의 성교육, 손덕수·허판례(역), 대원사, 1988.
- 황은자(1988), "성교육 담당교사의 성역할고정 관념적 태도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 Nurgess, Ann Wolbert & Holmstrom, Lynda Lytle(1979), *Rape Crisis and Recovery*, Bowie, Maryland: Robert J. Brady Co.